

아가의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

8/12 월요일

아침의 누림

아 1:2-4

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3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쓴은 관유 같아요.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계 19:7-9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마 25:6-13

6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7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8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였지만,

9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과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10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였지만,

12 신랑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 12:3

3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일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리니,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아가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 곧 이 책의 저자인 지혜로운 왕 솔로몬과 시골 처녀 솔람미(6:13)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 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단체적인 면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의 개인적인 면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믿는 이가 ... 여러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밝혀 준다. ... 이러한 전개의 단계들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상호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정에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아 1:1 각주 1)

그 전개는 그리스도의 연인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 그분을 추구하도록 이끌리는 첫째 단계로

시작하여 다음의 단계들로 이어진다. (1)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음. (2)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음. (3) 부활 후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 분명하게 부름받음. (4) 주님의 일에 동참함.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은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지막 단계로 끝난다.(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후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과 이처럼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나는 책상으로 가서 맨 먼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 우리 모두는 추구하는 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곧바로 그녀의 어조가 변한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기도이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 우리는 이처럼 그분과 매우 개인적이고 다정한 관계를 세워야 한다.

기독교는 물질적인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전파하지만, 우리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즉 그 영이신 그리스도(고후 3:17)를 전파한다. 이분은 내밀하시며 영적이시다. 우리는 왕의 내실들이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다. ... 우리를 방문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완결되신 영으로서 내밀하게 오신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추구하는 이들을 그분의 내실로 이끄시는데, 그곳은 바로 추구하는 이들의 영이자 그분의 거처이다. ... 내가 젊었을 때 받은 가르침은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들은 또 다른 말은 그 영계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신약 전체에서 그 영계 기도하는 것과 관련된 절을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와 아들과 영계서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엡 4:6, 고후 13:5, 롬 8:9)고 느낀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의 영은 지성소 곧 삼일 하나님의 거처이자 내실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1 장, 141, 145-146 쪽, 2 장, 152-153 쪽)

아가 1 장 2 절부터 2 장 7 절까지는 이 책 전체의 열쇠이다. 이 단락에 모든 영적인 원칙들이 담겨 있다. 이 단락은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체험을 미리 암시한다. 이후의 공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공과들이 더 깊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첫 단락에 담겨 있는 영적인 체험들은 순조롭고 수월해 보인다. ... 하지만 ... 이 체험들은 불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 사람이 무언가를 처음 체험할 때, 그 인상이 그다지 깊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체험할 때 아마도 그것은 좀 더 진보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체험은 처음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그 체험은 처음 가졌을 때의 체험과 동일한 것이며, 그 깃발은 여전히 사랑이다.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1 단락, 29-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1-12 장

8/13 화요일

아침의 누림

아 2:8-9, 10-15

8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어.
9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10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일어나 주오, 내 사랑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1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이오.

12 땅에는 꽃이 피고, 노래의 때가 되니 우리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오.

13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어 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있소. 일어나 주오, 내 사랑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4 바위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15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 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의 포도원들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롬 8: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산과 언덕은 둘 다 어려움과 장애물을 가리킨다.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아 2:8) 이것은 그 무엇도 그분을 멈추시게 할 만큼 높거나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미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기셨다. 어려움과 장애물은 어제에 속한 것들이다. 그분은 다음 날에 살고 계신다. 모든 어려움은 그분의 발아래 있다.(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2 단락, 54 쪽)

그리스도와와의 교통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편에 있다. 많은 ‘언덕들’과 ‘산들’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좌절된다. 하지만 그분께는 결코 좌절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뛰어오르고’ ‘뛰어넘을’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8/14 수요일

아침의 누림

아 3:9-10

9 솔로몬왕이 자신을 위해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네.

10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창 28:12-17

12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13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14 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15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17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요 1:51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아 2:9 상) 시편 22 편은 부활과 관련된 시편이다. 그 시편의 제목에서 ‘암사슴’이라는 단어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젊은 수사슴 같으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활 능력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아 2:9 중). 그분께서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신다는 것은 자아에 속한 문제인 연인의 자기 성찰로 인해 그녀와 그분 사이가 벌어졌음을 상징한다.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아 2:13 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연인이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 그분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보여 준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그런 사람이 도움을 얻어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기까지 때로는 일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아 2:14)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연인을 그분의 단일한 연인(나의 비둘기)으로 여기시면서, 십자가(바위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와 하나 되고 연결된 그녀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됨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연인을 부르시는 것을 본다. 십자가에 관한 이 요점은 자아에서 벗어나기를 다루는 이 단락의 중점이다.

만일 내가 그 연인이었다면 나는 “저의 사랑하는 분이시여, 저는 바위틈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틈은 너무 가파르고 그 길은 너무

협합니다. 제게는 그곳에 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연인에게 그녀가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십자가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계셨다. (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2, 25 쪽)

그리스도는 그분을 추구하는 이가 지속적으로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갈 2:20 상, 고전 15:31, 고후 4:10-11). 그러나 십자가에 머무는 것은 마치 바위투성이 길을 따라 바위틈과 높은 산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연인을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어 일어나 자기 성찰이라는 낮은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그녀에게 부활 능력(아 2:8-9 상)을 보여 주시으로써 그녀를 강하게 하시며 그분의 부활의 넘치는 풍성으로 그녀를 격려하신다(2:11-13). 그리스도의 연인들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다(마 16:24).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빌 3:10). 부활의 실재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며(요 11:25), 이분은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하셨다(고전 6:17 과 각주들). 이러한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체험하는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되어 자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아 2:14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1-5 단락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연인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사는 것이다.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승천 안에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데(롬 8:4),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할 것을 요구한다(히 4:12).(아 3:6 각주 1)

왕국 시대에, 가마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연인과 가마에 타시는 분으로 상징되신 그리스도는 승리의 축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께서 타고 다니시는 가마(낮인 왕국 시대의 여행을 위한 것, 벧후 1:19)로서, 부활하여 높이 올려진 고상한 인성(레바논 나무)으로 그분께서 직접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의 본성(금)을 그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은)을 그 지지하는 기둥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자주색)를 그 자리로 하였다(아 3:9-10). 가마의 내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딸들)의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라는 것을 상징한다.(아 3:9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가마에는 두 가지 방면, 즉 외부 골격과 내부 장식이다.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레바논은 부활과 승천을 상징한다. ...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의 인성으로 거친 암말들을 가마로 만드실 수 있다. ... 암말은 태어날 때부터 천연적이며, 암말에는 건축에 속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와 달리 가마는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건축된 것이다. 가마를 만드는 데 사용된 실질적인 재료는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성이다. 그리스도께서 타고 다니시는 운송 수단을 만드는 데 쓰인 것은 타고난 출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인성을 우리의 기본 골격으로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담고 표현하는 운송 수단으로 건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레바논 나무에 더하여 은으로 만들어진 기둥과 금으로 된 바닥이 있다. 은은 주님의 구속을 상징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지지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가 건축하는 것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하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실재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건축된 구조물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천연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솔로몬은 직접 가마를 만들었다. 가마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 오랜 기간에 걸쳐 주님은 그분을 위한 가마를 만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해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천연적인

조성에 속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그분은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구속과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책임은 단순히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가마의 내부 장식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사랑 외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요 21:15) 그분은 항상 우리의 사랑을 구하고 계시고, 오직 우리의 사랑만이 가마의 내부를 장식하기 위한 무언가를 제공한다. 주 예수님께서 가마를 만드셨지만, 그것을 장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다. 기본 골격은 나무와 은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부를 장식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성격과 개성을 더 잃어버릴 것이다.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더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가마의 내부는 완전히 장식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6장, 405-40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1-13

8/15 목요일

아침의 누림

아 6:13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솔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솔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골 1:27-29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고후 6:1

1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며,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모든 이기는 이들은 분명 하나님과 하나이며 또한 그리스도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술람미는 과거에 한 시골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동일하게 되었다. 이 네 가지 항목, 즉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지만 신격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신격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신이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는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 ... 주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과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12 장, 279-28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 마을들에서 묵어요.”(아 7:11) 이 절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에 머물며 온 세상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그녀가 종파적인 사람이 아님을 가리킨다. ... 우리는 일을 공개하여 다른 이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도 다른 곳에 가서 머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한 몸 안에서 한 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성숙한 생명이 요구된다. 오순절 운동은 능력과 기적을 강조했지만, 생명의 문제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했지만, 그들 역시 생명의 문제는 소홀히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내적 생명의 체험을 추구하는 이들을 얻으셨다. 이것은 귀용 부인(Madame Guyon),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와 같은 이들과 몇몇 다른 이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생명 방면에서 매우 깊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웠다. 윌리엄 로(William Law)는 그들의 가르침을 매우 실지적인 것으로 발전시켜서 많은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앤드루 머리(Andrew Murray)는 그에게서 도움을 입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인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본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제시 펜 루이스(Jessie Penn-Lewis)는 앤드루 머리에게서 많은 도움을 입었고, 주관적인 내적 생명,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에 대해 강조했다. ... 제시 펜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을 보았고, 오스틴 스팅크스(T. Austin-Sparks)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부활의 원칙들을 보았다. 니 형제님은 초기에 이런 교사들의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높은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 아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의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이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본다. 우리의 주님은 솔로몬이시며 우리는 술람미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아 8:11)을 돌본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단지 한 도시만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해야 함을 보여 준다. 우리는 반드시 온 세상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 바울은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고서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깨닫도록 이끄므로써 이것을 수행했다. (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67-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0

8/16 금요일

아침의 누림

아 8:5-6, 7a

5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 그대를 깨웠다고. 거기에서 그대 어머니가 산고 겪었고 거기에서 그 여인이 산고 겪으며 그대를 낳았다고.”

6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여호와와 불길입니다.

7 많은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고후 12:9-10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롬 8:37-39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휴거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가 왔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분께 몸을 기대어 끊임없이 세상을 떠나고 거둬서 세상에서 올라온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그분의 연인은 힘이 없어 걸을 수 없는 것 같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그분의 연인은 자신을 맡겨 사랑하는 분이 지고 가야 할 짐이 된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마치 그분의 연인의 엉덩이뼈가 하나님께 맞은 듯하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그분의 연인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압박이 지속될지도 모른다. 오직 주님만이 휴거되도록 우리를 예비시키실 수 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외치실 때까지,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처럼 그분께만 신뢰를 두어야 한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분의 연인은 자신의 처음 상태를 회상할 때 겸손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비어 있고, 자신의 체험이 과장되었으며, 자신의 생각이 믿을 만 하지 못했고, 자신의 추구가 보잘것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코 자신의 견딜 수 있는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존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온전함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주세요.”(아 8:6)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은 사랑하는 곳이며, ‘팔’은 힘이 있는 곳이다. “... 저는 제가 약하고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며 자신의 무력함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에게는 해만 줄 것입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 제가 신뢰하는 것은 저의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붙잡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당신께 더 이상 저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라고 했는데, 누가 능히 죽음을 흔들 수 있겠는가? 어떤 부모의 탄식도 아내의 눈물도 친구의 슬픔도 사랑을 죽음에서 되돌릴 수 없다. 죽음은 자신의 포로들을 자신의 손안에 굳게, 가차 없이,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붙잡고 가두어 둔다. 만일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결코 죽음보다 약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질투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의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합니다. ... 당신은 그 무엇도 제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마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신다고 해도 당신은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결코 자신의 소유가 된 이들이 세상으로 더럽혀지거나 다른 사랑이 그들을 강탈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태고 때부터 당신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출 20:5). 이전에 당신의 사도들도 저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고후 11:2)?

당신께서 질투하신다면, 그 누가 당신의 질투를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 ... 당신은 유일하신 주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견줄 수 없는 왕이 되실 때까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가 당신의 얼굴을 뵈 때까지 저는 보호받고 제 순결함은 보존될 것입니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64-165 쪽)

아가 8 장 13 절은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자신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해 달라고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요청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그분의 말씀하심 가운데서 그분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표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그분과 일하면서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단 2:35b

35 ...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계 22:12-14, 16-17, 20

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음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 안에서 속히 돌아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계 11:15, 단 2:35)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아가 8 장 14 절에서 우리는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랑하는 분의 연인의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통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계 22:20).

이 시는 하나의 예표로서, ... 왕과 한 시골 처녀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이 시는 이 예표의 성취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연인사이의 혼인의 사랑을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이 혼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과 그분의 연인의 인간 미덕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연인이 서로를 누리는 가운데 있다. 이 시의 이러한 두 방면의 전개와 단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재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다.(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가 8 장 14 절의 표현은 2 장 17 절과 같다. 이 두 기도는 같은 기도이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같지 않다. 아가에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이라는 표현으로 두 번 언급된다. 첫 번째(아 2:17)는 그분께서 믿는 이들과 완전한 교통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직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고 날이 새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교통이다. ... 그러나 두 번째(아 8:14)는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킨다. 이러한 오심은 장래의 일이다. 매우 가까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아가 2 장 17 절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가 8 장 14 절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 이 절의 중점은 교통이 아니다. 따라서 아가 8 장 14 절은 베데르산들이 아니라 향기 그윽한 산들에 대해 말한다. 이것이 묘사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조건과 그분의 왕국이다.

8/17 토요일

아침의 누림

아 8:14

14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그때 이 여인의 체험은 바닷속으로 이미 사라진 한 방울의 물과 같을 것이다. 비록 바닷물은 언제나 더 깊이 흐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곳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녀의 몸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미 다른 세상으로 옮겨 갔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왕국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부르짖는다. ...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변하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늘이 전혀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랍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73-174 쪽)

아가의 마지막 중점은 이 책의 마지막 절인 8 장 14 절에 있다. ... 아가는 성경 전체의 정수이다. 이 책의 짧은 여덟 장 안에 성경이 다 녹아 있다. 성경의 끝에서 주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계 22:20)라고 말씀하신다. 아가 8 장 14 절에서는 “속히 오셔서”라고 말한다.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라는 말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의미이다. 주님은 향기 그윽한 산들로 오실 것이다. ... 아가에서 향료는 우리가 체험하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자라 나오신 주 예수님의 여러 방면들이다. 머지않아 주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체험이 산처럼 쌓일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왕국을 가져올 것이고, 왕국은 향기 그윽한 산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 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14 장, 5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 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14 장

8/18 주일

아침의 누림

딤후 4:1-2, 5-8

- 1 겨울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 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 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찬송: 556 (英) 주님의 이름 쏟은 향기름 (中:408)

- 1 주님의 이름 쏟은 향기름 주님의 사랑 술보다 달아 양 무리 자취 따라 갈 때에 사랑의 교통 안에 들어가.
- 2 그는 내 사랑 난 그의 배필 주 인도하니 그를 쫓아가 몰약의 향내 맘에 간직해 고별화 아름다움 입겠네.
- 3 그 사랑 안에 달콤함 누려 그 품에 누워 향기 맛보네 그는 내 깃발 나를 가리며 그 사랑 내 맘 상쾌하게 해.
- 4 그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난 그의 백합 그가 날 길러 날이 썰 때면 어둠 사라져 아침 노루인 그를 만나리.
- 5 주 함께 죽은 몰약의 향기 부활의 유향 내 맘 적시네 북풍아 일라 남풍아 불라 내 맘의 동산 주 기쁨 되게.
- 6 난 그의 눈에 비둘기 같고 순전한 백합 같기 원하네 온전히 주께 속한 나에게 주만이 노래 중의 노래라.

- 7 달처럼 그의 형상 얻으리 해처럼 맑게 나는 자라리 내 사랑 주께 온전히 속해 주님의 마음 기쁘게 하리.
- 8 그는 내 생명 난 그의 형상 사랑의 연합 굳세고 강해 내 사랑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향기로운 산으로.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9:18-28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45-46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as Our High Priest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Scripture: Heb. 1-2; 4-10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28, 31-33

Supplemental Reading: *A General Sketch of the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Christ and the Church (part 3—Hebrews through Jude)*, ch. 26; *The Apostles' Teaching*, chs. 6-7

Questions:

1.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f any, between the order of Aaron and the order of Melchizedek?
2. Describe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as our High Priest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3. Must Christ be a priest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and if so, why?
4. How have you experienced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as your High Priest?